

# 월드컵 · 대선 파급효과 클 듯

## 완만한 상승세로 경기회복 국면 진입



◇인쇄업체는 월드컵과 선거특수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국내 경제지표가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인쇄업계의 하반기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다.

2002 한·일월드컵 축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잠재적 경제효과가 천문학적 숫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5%대에서 6%대로 상향조정하는 등 최근 경기회복세에 맞춰 경제운영 계획을 수정했다.

월드컵 개최전까지만 해도 인쇄업계에 파급된 월드컵 경제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월드컵 이후 인쇄업계를 포함한 국내 경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쇄업 경기 전망도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월드컵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대회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모두 3조4,700억원의 지출을 통해 5조3,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에 상당하는 부가가치가 월드컵을

통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2002월드컵축구 이후의 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추가하면 국내 경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경제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인쇄업계에 직접적으로 파급되기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12월 대선으로 인한 인쇄물 증가효과도 하반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인쇄업의 3/4분기 경기전망BSI도 116을 기록, 2/4분기(110)에 이어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쇄업계 계절적 비수기인 3/4분기에 2/4분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대체로 혼한 일이 아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는 증거이며 체감 현장경기도 나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 ■ 상반기 가동률 상승

올 상반기 인쇄업계 경기동향은 한마디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시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지난해 계속된 내수침체에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던 것이 인쇄업계의 분위기였다.

또한 인쇄업의 평균가동률도 60%초반 대에 머물렀고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던 인쇄물 수출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잠재성장의 위축이라는 우려와 함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따라서 올 상반기는 인쇄업계에 있어서 침체국면의 연속이나 회복세의 반전이냐는 기로의 중요한 기점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 인쇄업계의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행이 올 들어서 인쇄업의 경기지표들이 대체로 나아지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 들어서 인쇄업의 평균가동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에 근접하는 등 대체로 미미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0%라는 큰 폭의 설비투자 감소율을 보여 인쇄업계가 또 장기간의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다행이 올 들어 설비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경제기관의 인쇄업 전망도 매우 낙관적으로 나타나 상반기 인쇄업 경기동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인쇄업 경기전망BSI가 1/4분기(110)에 이어 2/4분기 131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로 인한 인쇄물비용이 5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막혔던 숨통이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 기자재도입 급증 '경기회복' 뒷받침

물론 내수경기와는 달리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쇄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감소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으나 내수비중이 높은 인쇄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로 경기상태가 양호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내수경기의 회복세로 소비문화가 늘어나면서 백화점 전단지 등 상업용 인쇄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월드컵개최 이후의 경제과급효과와 올 12월에 있을 대선으로 인해 인쇄업 경기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금까지 우려됐던 인쇄업계 설비투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은 경기상승의 신호탄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몇 년간 인쇄업계의 설비투자 양상을 분석해보면 경기가 나쁘면 설비투자를 자제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이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 인쇄업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이다.

물론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내 경기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인쇄물 수출이 당분간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그러나 인쇄업계에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3%대에 그치고 있고 전반적인 국내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물 수출이 하반기에도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으나 미·일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속도가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돼 지난해 수준은 어려울지 모르나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김광륜 차장  
 <kky@print.or.kr>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원테이프는  
 세계인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株) 동원테이프산업** 전화 2271-3492